모짜르트의 오페라를 만나다.

Cosi fan Tutte

여자는 다그래



지휘자 **홍영일**



페란도 **민현기**



도라벨라 **김은지**



굴리엘모 **한민권**



피오르딜리지 **김은영**



돈알폰소 **곽상훈**



데스피나 **이현정**

- 리아미치오케스트라
- 피아노 : 신자연

2013. **4. 19**(금) 19:30 |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대극장)

주최 하남시 주관 하남시립여성합창단 문의 031-790-6063

여자는 다그래
Cosi fan Tutte

W. A. Mozart 모차르트 1756~1791

대본 Lorenzo da Ponte 로렌초 다 폰테
초연 1790년 1월 26일. 빈
지휘 및 연출 홍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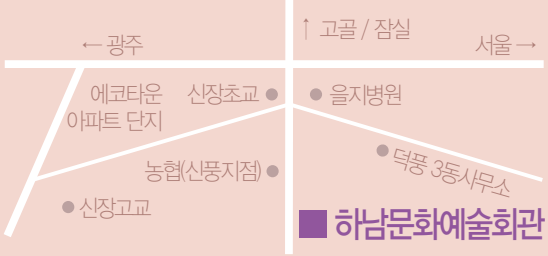
페란도 : 민현기 테너
도라벨라 : 김은지 메조소프라노
굴리엘모 : 한민권 바리톤
피오르딜리지 : 김은영 소프라노
돈알폰소 : 곽상훈 바리톤
데스피나 : 이현정 소프라노
여자해설자 : 우예하
남자해설자 : 이정민
자막 : 김형곤

페란도와 도라벨라, 그리고 굴리엘모와 피오르딜리지는 서로 결혼을 앞둔 한 동네에 사는 연인들이다. 도라벨라와 피오르딜리지는 자신들의 남자들이 하루 빨리 자신들에게 청혼을 하기를 기다리지만 아직 남자들은 그럴 맘이 없다. 그러는 가운데 동네에 철학자 돈 알폰소는 남자(페란도,굴리엘모)들에게 여자는 언제나 마음이 변하기 쉽고 멋진 남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의 마음도 움직인다고 부축인다. 그러면서 내기를 제안한다. 자신(돈알폰소)이 일을 꾸며서 여자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 시켜주겠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남자들은 자신들의 애인들은 절대 변치 않을 여자들이라고 장담을 하며 내기에 응한다. 그러자 철학자 돈 알폰소는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에게 찾아가 당신들의 애인들이 군대에 직업군인으로 가게 되었다며 이별을 하게 되어 찾아올거라고 이야기 하자 여자들은 아쉬운 마음에 3년간의 기다림을 전제로 남자들을 보내 준다.

돈알폰소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위해 동네에서 수다스럽기로 유명한 데스피나를 끌어들여 굴리엘모와 페란도에게 변장을 시켜 세련되고 이국적인 매력의 남자들로 만들어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에게 소개를 시켜서 여자들이 넘어오게 하자고 제안을 한다.

만일 그렇게 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 한다. 이에 신이 난 데스피나는 돈 알폰소와 함께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에게 접근을 하여 군대간 남자들은 잊고 새로운 남자들을 만나보라고 권한다. 이에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이야기 한다. 그러자 변장을 한 남자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쥐약을 먹어 죽는게 나을 것 같다며 쥐약을 먹는다. 이런 애절한 사랑에 감동을 한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는 마음이 조금씩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는 군대에 간 자신들의 남자들은 조금씩 잊어버리고 새로운 남자들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남자들의 집중 공세에 결국 결혼을 하기로 하는데…(그 다음 장면은 오페라를 봐 주세요!)

| 찾아오시는 길 |



| 유의사항 |

- 전석 무료관람입니다.
- 공연관람은 초대권 소지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좌석권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1인1매에 한하여 좌석권을 배부하며 좌석이 마감될 경우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 공연 중 사진촬영, 꽃다발 증정을 금합니다.
- 만 5세이상 입장가능

• 티켓문의 031-790-6063 / 010-3374-4767
• 찾아오시는 길 문의 031-790-7979